

김영록 지사, '신안 가거도' 민생현장 점검

가거항 태풍피해복구 독려, 민원 청취, 코로나 의료진 격려

김영록 전남지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17일 대한민국 최서남단인 신안 가거도를 찾았다.

방파제 공사 현장을 찾아 업체 관계자들의 태풍 피해 복구를 독려한 김 지사는 육지에서 가장 먼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을 약속했다.

이날 김 지사는 지난 8월, 9월 태풍 비바와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가거도항 복구 상황을 살폈다. 정부가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말까지 2천 177억 원을 들여 연장 501m의 방파제를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태풍 링링과 올해 비바로 각각 380억 원, 100억 원(추정치)의 피해를 입었다. 오는 2025년 말로 완공시기가 늦춰졌다는 공사 관계자의 보고에 김 지사는 "계속되는 태풍 피해에도 공사를 계속 진척시켜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주민들이 태풍에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거도항 인근 정자에서 주민 대표들을 만났다. 고승권(40) 가거도 1구 이장, 고승호(69) 2구 이장, 임성인(50) 3구 이장, 고동술(77) 노인회장, 조운찬(66) 어촌계장, 김은자 부녀회장(60) 등과 둘러앉은 김 지사는 ▲유류창고 이전 ▲2·3구 진입로 정비 ▲택배 불편 개선 ▲관광객 배상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함께 참석한 박우량 신안군수와 함께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10억 원, 5억 원을 즉석에서 부담하기로 해 주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김 지사는 "먼 곳에 있는 주민들이 더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특히 국토 최서남단에서 고생하는 주민들을 위해 이 정도는 해드려야 한다"고 미소를 보였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에겐 가거도가 '에너지 자립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가거도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뒤 독실산을 넘어 가거도에서도 오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7일 오후 신안 가거도항에서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이장, 어촌계장 등이 참여한 주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에 해당하는 3구를 찾아 주민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가거도의 취약한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목포와 가거도 간 항로에 여객선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현재 쾌속선 1척이 증선돼 1일 2회 왕복 운항이 이뤄져 1일 생활권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지난 2012년 해양 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거도에 지금까지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양쓰레기 수거와 생태관광사업, 탐방로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또 신안섬 지역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도서쓰레기 정화 운반선 1척을 내년까지 새로 건조할 계획이다. /유규진 기자

전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묵념사이렌

19일 추념행사 맞춰 오전 10시·11시 여수·순천시 각각 울려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추념행사에 맞춰 19일 오전 10시와 11시에 여수와 순천 전역에 1분간 묵념사이렌이 울린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여주시 주관으로 시행될 '제72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 행사에 맞춰 여수 전역에 울리고, 오전 11시에는 전라남도 주관 행사인 '여수·순천 10·19사건 72주기 합동위령제'에 맞춰 순천 전역에 울리게 된다.

7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한 묵념의 시간으로, 전라남도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원격으로 작동한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울릴 경보 사이렌은 적기 공습에 따른 민방공 대피 사이렌이 아니다"며 "주민들은 놀라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은진 기자

묵념사이렌은 '여수·순천 10·19사건'



전남도청 카누팀은 16일 충남 부여 백마강카누장에서 끝난 제33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에서 남일부와 여일부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다. 사진은 카누 전남도청 원조부인 이민아, 김소현, 이진솔, 임성화.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 카누팀, 금빛 물살 갈랐다!... 총 12개 메달 쾌거

제33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

전남도청 카누팀이 코로나19를 딛고 전국카누선수권대회에서 금빛 물살을 갈랐다.

전남도청 카누팀은 16일 충남 부여 백마강카누장에서 끝난 제33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에서 남일부와 여일부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다. 먼저 남일부 C-1 200m에 출전한 최지성은 42초638의 기록으로 오해성(울산, 43.035)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최지성은 C-1 1,000m에 출전해 4:22.409의 기록으로 김이열(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어 2위로 골인했고, C-1 500m에서도 2:00.142를 기록하며 2위

로 은메달 2개를 추가했다. 임성화, 김소현, 이민아, 이진솔이 출전한 여일부에서는 K-4 200m에서 37.736의 기록으로 경남체육회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연이어 임성화와 김소현이 조를 이뤄 출전한 K-2 500m에서 은메달, K-2 200m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하며 대회를 마쳤다.

전남도청 카누팀 외에도 전남대표로 출전한 삼호중학교와 목포대학교 카누팀, 전남체육회 카누팀도 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체육회 전략종목 카누팀 정유성과 송지용은 남일 K-2 200m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하며 전남 카누선수단은 금메달 2개 포함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김정관 기자

일본뇌염 바이러스 감염 주의보

경기도서 올해 첫 환자 발생

광주광역시에서는 최근 경기도에서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 모기에 물린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나 250명 중 1명 정도에서 임상 증상이 나타나며,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10월말까지 관찰되고,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8월에서 11월에 발생하므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예방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오 기자

"완도수목원서 '국화향기'로 힐링하세요"

25일까지 '가을산책주간' 추진

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재충전 할 수 있도록 17일부터 25일까지 '2020년 완도수목원 가을산책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완도수목원을 방문하면 늘 푸른 난대림과 각양각색의 국화가 어우러진 특색 있는 수목원의 가을을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특히 가을에 개화하는 털머위와 금목서, 구름목서 등 같은 난대수종 꽃들과 더불어 다채로운 색깔의 국화꽃을 활용한 국화 꽃길, 이색 포토존이 조성돼 방문객들로 하여금 가을향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림전시관 1층에 한국무궁화연합회 작가들이 그린 나라꽃 무궁화 작품을 비롯 완도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회화 작품도 전시해 남도 문화예술의 깊이와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한편, 완도수목원은 전라남도가 운영



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재충전 할 수 있도록 17일부터 25일까지 '2020년 완도수목원 가을산책주간'을 운영한다. /전남도 제공

중인 공립수목원으로 완도의 청정바다와 푸른 난대림이 어우러진 2천 33ha에 달한 국내 최대 규모의 난대림 자생지다.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770종

의 난대성 자생식물이 분포돼 있어 사시사철 푸르른 숲을 자랑하고 있으며, 아열대온실과 수변데크, 난대숲길, 31개의 전문소원 등이 갖춰져 관람할 수 있다. /김태엽 기자

전남도립도서관, 도서관 직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전남도립도서관은 16일 도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활용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 현장

에서 필요한 실무 위주 교육으로 꾸러졌다.

이날 강의에서 장은수 편집문화실실대표가 국내외 출판동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요훈 IT 칼럼리스트가 'IT도 코로나는 처음'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에 대응할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교육 활용에 대해 각각 강의를 펼쳤다. /박정오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사람이 비우면 자연은 채웁니다

사람의 손길이 멈춘 자리에 나비가 날아들고 새들이 지저귀니.
사람의 발길이 잦아든 자리에 푸른 열매가 자라고 붉은 꽃이 필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푸른 세상을 꿈꿉니다.